

“문화재사랑 영원히 사는 길”



산문박의 單

‘문화유산의 해’ 집행위 한병삼 위원장

내고장 문화유산부터 알고 찾고 가꾸는 일 민족얼 고쳐 첫걸음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이다.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은 우선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는 말이 있다. 늘상 보는 주위에서 소중함을 찾는 일,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 내 가꾸는 일은 ‘마음을 내는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자기가 사는 고장에 무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있더라도 그 문화유산에 대해 아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사람이 될 겁니다.” 고수철 얘기가 나오면 언성을 높인다. 문화정책이란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문화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해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지역 개발논리 여론에 밀려 정부가 갈광질광하는 것이 안타깝다. 선진국일수록 개발과 문화재가 충돌할 경우 예외없이 문화재가 선(先)인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우세논리를 막기가 역부족이란 느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심란하면 그때마다 미륵반가상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편안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그윽한 미소를 지어주시지요. 한없이 바라다 보면 삶에 대한 반성같은 것이 문득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저 그윽한 미소를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을까 되뇌어 보곤 했지요.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계곡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설 푸른 산빛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라 간밤에 들던 팔만사천 계승 다른 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 보이라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계곡의 파도소리를 듣고 문득 막혀있던 통 밀 바다가 ‘뚝’ 빠지는 듯한 깨달음을 얻고 이와같은 계승을 지었다고 합니다. 항상 듣는 계곡의 물소리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천년만을 넘도록 사람들에게 환희를 주는, 저 해탈의 미소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지요.”

“심란할 때면 ‘미륵반가상’ 미소 뵈러갑니다” 토기파편 하나 민족재산 ‘국민 모두 파수꾼’

살아야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극 정성으로 혼과 마음을 모아 만든 문화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렐수록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진면목을 보아야 하는 데 요즘은 문화재의 진가를 얼마짜리 나로 정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골동품으로, 또는 부(富)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팽배해있지 않나 여겨져 문화재에 대한 인식왜곡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개발일변도로 오로지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해온 우리 민족이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시급한 안내 또한 자세하면서 내용도 풍부해 전문가를 뺀치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박물관에 진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진귀한 보물들을 돌같이 보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예전에 제 선생님께서 늘 이르셨죠. 유물발굴을 하면서 쓸모없는 토기 파편 하나라도 무시코 집에 들고가면 절대 안된다고요. 문화재와 인연 맺은 지 30년이 훨씬 넘지만 기와 조각 하나 집에 들고가지 않는 신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물건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자제하기 힘든 사람은 아예 박물관이나 문화재와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지요.”

천 일기도도량

光明禪院

방배동

개원 4주년 큰스님 초청 대 법회 1월6일(월) ~ 16일(목)
일만배 참회 정진기도 10일간 일만배 참회 정진기도

1월6일(월) (오전10시)	무진장 큰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사) 주제 : 열린마음 열린세상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7일(화) (오전10시)	종범 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주제 : 불교의 문화 · 전생관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8일(수) (오전10시)	월운 큰스님(동국대역경원장) 주제 : 불자의 올바른 삶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9일(목) (오전10시)	초경 스님(광명선원 원장) 주제 : 기도의 참의미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10일(금)~1월15일(수)	부처님 성도 맞이 특별정진기간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16일(목)	성도제일 법회 및 회향식 (오전10시)	

부설기관

- 구립 전농공부방
- 구립 사당어린이집
- 도서출판 불전

천일기도 정진시간

- 새벽기도 : 새벽 4시
- 사시기도 : 오전10시
- 백팔참회기도 : 오후 2시
- 저녁예불 : 오후 6시

위치안내

- ◆버스노선 일반 : 1, 29, 288, 87, 87-1, 88-1
좌석 : 42
▶방배 1동 사무소 앞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방배전철역 하차, 방일초등학교 출구 마을버스 (광명선원 앞 하차)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884-18호(방배동 향일APT입구)
불 전 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전화 : (02) 584-1108
587-3753

불교의 기공과 명상

학림불교회관에서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의해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기공명상을 통해서 기(氣)를 닦고 쌓아 심신(心身)을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심성의 본체를 깨쳐 마음의 휴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련생 모집을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은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수련과정(불교의 수행법과 진수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지도)

- ▷ 1단계 동법(動法) : 기공명상 동법(動法) 54식, 호흡법, 도인법 → 身 위주로 수련(動中有靜)
- ▷ 2단계 정법(靜法) : 기공명상 정법(靜法) 54식, 삼주천법(三週天法), 치료기공법, 요가체위법(體位法) → 心身병행으로수련(動中有動)
- ▷ 3단계 공법(空法) : 사마파티, 無心의 心, 無息의 息, 無形의 形, 心識의 空性에 대한 철학 이론과 수행 → 心위주로수련(靜動無靜)

■ 수련시간
매주 화 · 금요일 : 오후 2:00 ~ 3:30, 저녁 7:30 ~ 9:00

● 수련생수시모집 ●

- 수련기간 : 1월 11일부터 97년 4월 14일 까지
- 동참비 : 3개월 → 12만원(교재비포함)
※ 2인 동참 접수시 → 20만원(각10만원)
- 지도법사
태광스님(‘티벳 기공명상’ ‘영원으로 돌아 가는 길’,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비법’ 저자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졸업, 말레이시아 백련선원 원장, 인도 · 스리랑카 · 티벳 · 네팔 · 중국 등 여러나라 명상 센터에서 수련 및 지도)
- 위치 : 노원역 우성 APT 맞은편 학림불교회관 5층 대법당
- 특별수련 : 토 · 일요일 양일간 명상 → 1월 11일부터 시작

학림불교회관 문의 학림사

932-1411(종무소) 936-1700(종무소)
932-1412(유치원) 936-4100

“다시 올때는 잎이 없다”는 뜻은

문 육조 혜능스님이 열반에 앞서 제자의 물음에 대답하셨는데 물기를 ‘스님께서 이제 가신다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니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올때는 잎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

스스로 참구하심이 좋을 터인데 어찌 말씀을 구하시는지요.

육조스님께서 대중에게 이렇게 이르신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릿도 없고 꼬리도 없고, 눈도 코도 입도 없고, 이음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성이란 본래 여하여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고 간다 온다도 없으며 명과 무명이 들어 아니고 더럽도 덜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오고 감이 있다고 할 것이고 밝으니 청정하니 하는 말도 하게 되겠지요.

육조스님께서 그와같이 대답하신 것은 다만 나뭇잎의 이치를 보이는 가운데 가는 것은 무엇이든 오는 것은 무엇이든, 질한 것 제자에게 되묻고 계산 것입니다. 그러나 뜻

나,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렇게 대화가 하고 싶었고 어느 순간에 가지 하나라도 꺾을 생각이 들었다가는 나 살자고 가지를 꺾으면 나무는 피를 흘리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시다. 그때 누가 가르쳐주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그게 인연도리요 그럴 때가 되었던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자기가 자기를 끌고다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자동차를 몰듯이 몰고 다니는데 그렇게하면서 이 도리를 모르면 모른대로 또 착한도 하고 알면 아는대로 승진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단련 공부도 중요하지요

문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정신의 공존체입니다. 불법공부는 마음공부, 즉 정신세계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단련을 위해 단전호흡이라든가... 그런 공부는 정신적인 공부만큼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단전호흡과 같은 기(氣)공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경수 ·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답 찬성하고 앉고자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말라다가보다 그것이 효과적

지 상 상 담

길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활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대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풀이를 하려 하지말고 스스로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해도 자기탓입니까

문 사람은 따라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환경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환경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공정진 · 인천 부평구 갈산동)

공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데 팔라는 것과 같지요.

답 현재의식으로 모든 상황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할수야 없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죄라 한다면 모르는 게 죄라 하겠지요.

그런데 죄는 있다 할게 아니지만 가령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읽으면서 어떤분은 자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잘 받아들이고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할겁니다. 탐욕을 자제하고 이치가 그렇다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못믿어서 자함을 느끼고 한다면 그런분은 자기 마음먹은대로 심고 거두고 하겠지요.

개중엔 종교를 믿는다 안믿는다와 관계없이, 마음공부를 한다 안한다와 관계없이 천성이 순박해서 절로 인연이 닿고 절로 알아지는 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도 예전에 산에서 공부할 때에, 물론 공부한다 안한다 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돌맹이 하

인 공부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단전호흡이나 기공부나 하는 것은 육신을 돕자고 하는 공부인데 이와 공부를 하려거든 마음공부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단전호흡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기를 모으다가 순환을 시키지 못해서 달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배설물 먹고나면 또 일정한 배설해야만 할 수 있는데 기를 모으다가 뒷처리할 하지 못하니가 사방이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놓을 건 없지만 그렇기에 또 무공무진한 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왕 공부하려거든 마음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전호흡을 한다면 병이라는 것도 물질의 병이지만 실은 마음의 병이 먼저이고 따라서 건강을 위한다면 마음 다스리는게 먼저입니다. 마음다스리면 기는 절로 다스려지니까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자리를고 앉아서 무슨 호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하면서 참선, 먹으면서 참선, 자면서 참선, 사랑하면서 참선을 해야지요. 그건 마음 공부입니다. 어떤 분은 기공부를 해서 조금 경계가 열리고 앉은 채로 붕 뜨게된다고요. 설사 그런 능력이 조금 생겼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까. 무슨 대수라도 난 양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 만심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벗어나야 참 공부인 것입니다.

이경숙 기자